



## 11월 지육시세는 3,100원/kg 예상

역시 추석을 지난 10월의 돈가는 예년과 같이 맥없이 무너지며 30% 이상 하락하여 100kg기준 비육돈 1두의 산지가격으로 195,000원을 기록하며 평균 생산비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8월말 비육돈 지육단가 4,100원대를 2,800원대로, 한달만에 무려 비육돈 지육단가를 kg당 1,300원 하락시켜 사료 가격의 대폭 인상으로 걱정 많은 양돈농가의 가슴을 완전히 쫓아 붙게 만들고 있다.

매년 10월 돼지고기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추석으로 보인다. 추석 명절 이후에 약 2주간은 각종 회식이나 잔치들이 줄어들면서 돼지고기 소비도 같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 되었다. 이와 같이 매년 반복해서 10월의 돈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물론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성장이 지연되었던 돼지들이 성장을 빠르게 회복하여 출하가 이루어지고, 원래 10월 출하예정돈의 출하가 겹쳐 출하되면서 돼지의 출하두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돼지고기 공급은 크게 늘어나지만, 이와 반대로 돼지고기 소비는 추석을 지나면서 약 2주간 음식점과 가정 소비가 줄어들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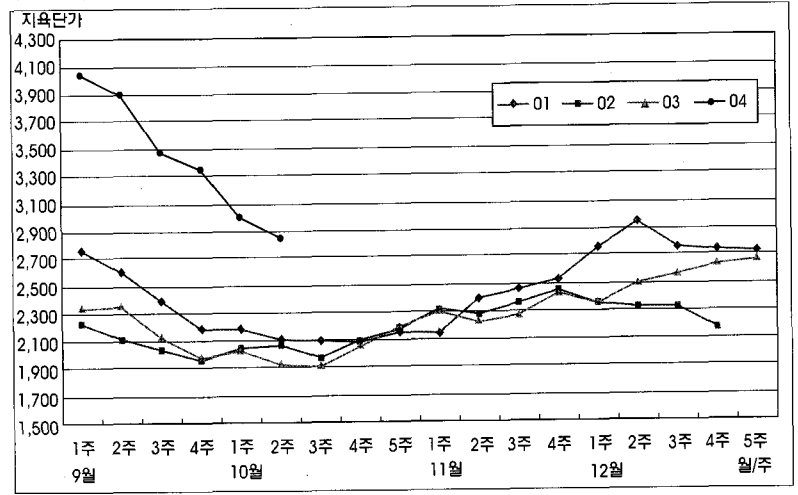
권혁만 팀장  
(주)선진한마을 모든계열팀

금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의 각종 브랜드 돈육의 부분육 도매가격은 삼겹살이 kg당 한달전 12,000원대에서 현재 9,000원대로 약 kg당 3,000원대가 하락하여 돈육 소비감소로 삼겹살 재고가 증가하고 도매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후지 가격은 지육 kg당 2,800원대에서 3,100원대로 상승하여 2차 육가공업체가 사용하는 후지가 부족해지면서 부분육 중 후지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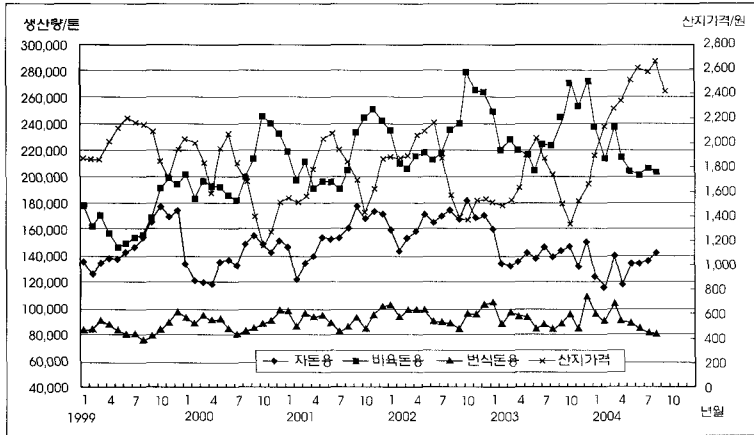
산지 돼지가격이 100kg기준 한달 전에 두당 265,000원대에서 10월 11일 현재 195,000원대로 하락하여 삼겹살과 목살의 부분육 단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육가공업체의 수익성은 후지 가격 상승과 산지 구입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오히려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육가공업체는 돼지 도축두수를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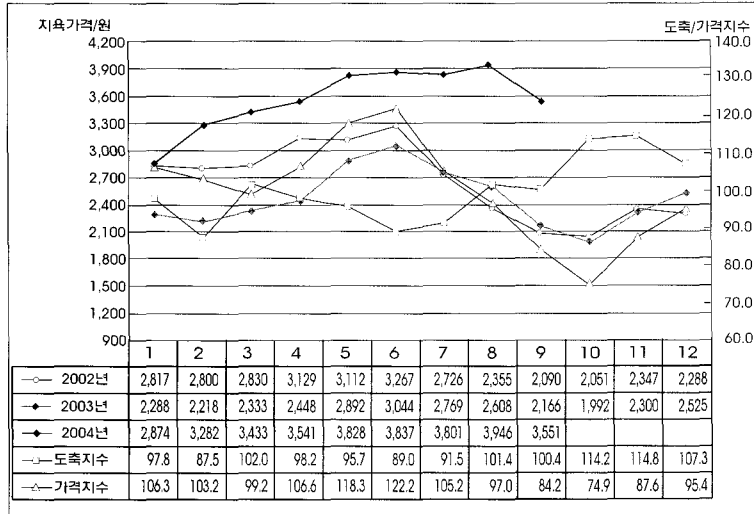
<그림 1> 전국 도매시장의 최근 4개년간 주간별 지육가격 동향



〈그림 2〉 최근 6개년간 월별 사료생산량의 변화와 돈가 동향



〈그림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와 월별 돈가동향



보다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돼지고기 소비 하락추세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돼지가격이 하락하여 폭락 장세를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지 돼지가격도 10월 둘째 주 지육 평균단가를 바닥으로 서서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9월에 발표된 전국의 돼지 사육두수 조사는 모돈두수가 2003년 9월 이후 1년 연속 감소하여 출하두수 감소추세가 2005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2개월령 미만 자돈 사육두수 감소추세도 2003년 9월 이후 현재까

지 1년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계절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출하두수 증가 말고는 출하두수가 증가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

2004년 8월의 배합사료 생산 동향 중 자돈사료의 증가는 전년동기 보다 1.6% 증가하여 금년 처음으로 전년동기를 앞질렀으나, 연평균 누계는 7.6%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자돈두수의 증가를 예상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자돈과 모돈 사료생산량의 장기간 감소추세는 앞으로 상당기간 돼지 출하두수가 증가하지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기간 전년 동기 대비 출하두수 감소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돼지 공급의 감소는 당연한 예상이다.

다만 현재 고유가를 중심으로 한 복합불황 때문에 돼지고기 소비가 줄어들고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경우에는 돼지가격의 회복에도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번 돼지고기 소비는 추석 이후 예년처럼 나타나는 일시적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돼지가격은 곧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금년 11월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비육돈 지육단가는 소비 회복과 돼지 출하두수가 10월보다 약간 줄어들면서 강보합세를 유지해 가면 3,100원대를 중심으로 형성될 것 같다. **양돈**